**창1516 Note**

**◆** **호크마 주석: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**

'관영'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'솰렘' (\*)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찬 것을 뜻한다.

이 처럼 죄악에도 도수(度藪)가 있는데(6:5;롬 2:4, 5;벧후 3:8, 9)

회개치 않은 죄는 계속 쌓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고마는 도수에까지 이르게 된다(대하 36:15, 16).

본절에 나오는 아모리족 역시 아브람 때까지 이미 팔레스틴에서 400여년간을 살면서 갖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간의 회개 기간을 더 주셨다.

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고 죄악의 도수만 높여갈 뿐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(수 10:40-43).

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선 제한이 없지만(엡 3:18, 19) 기간에

있어선 제한이 있다(막 1:15;고후 6:2).